

사회범죄심리학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론인데요,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평소 자주 지나던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건물에 누군가 돌을 던졌는지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 그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도둑이 들었나?' 장사가 망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저 건물은 주인이 관리를 포기한 건물이라고 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도 깨뜨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건물에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곧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작은 부분도 시를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론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포도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벌써부터 농부의 마음은 설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여우를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포도원을 망가지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포도원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포도 열매가 풍성하듯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며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며, 또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가득하여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역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작은 여우' 역할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안에 혹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루어가는 성은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회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❷ 7월 중보기도카드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독교 악법(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생활동반자법 등)이 저지되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❸ 매주 수요일에 거리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의 생명 구원에 한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❹ (교우동정) 권일석 집사님이 수술 후 병원에서 회복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식당봉사 - 6셀

▶ 다음 주 - 7셀

◆ 7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7/2	맥추감사주일
7/29~30	청소년부 하계수련회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